

몽골 수채화 대가 상상력 투영 ‘장엄한 자연서사시’ 구현

다와삼부긴 바트나산 작가 전시 10일까지 갤러리생각상자서
사막·오아시스·협곡 등 재해석…유화·구상·추상 30여점 선보

몽골의 자연은 오묘하다고 한다. 워낙 넓기 때문에 사막과 옛 바다 흔적, 숲, 고은, 오아시스, 협곡 등 자연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그로부터 발산되는 풍경은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형태가 존재한다. 가령 협곡 같은 곳을 진입하면 마치 고대 신전에 들어간 듯한 분위기와 대면한다고 하니 몽골의 자연은 온갖 상상력을 안겨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연으로부터 얻은 온갖 상상력을 몽골의 언어로 조형화 작업을 펼쳐온 다와삼부긴 바트나산 작가. 현대 몽골 미술에서 수채화의 표현 영역을 새롭게 확장해 온 대표적인 작가 중 한 명으로 광주에서 처음으로 선보이고 있다.

주홍 관장(갤러리생각상자)이 전시에 앞서 “수채화로 평강히 유명한 작가로, 몽골에서는 자연 수채화가이며 사실력이 뛰어난 분”으로 평가한 다와삼부긴 바트나산 작가의 전시는 지난 1일 개막, 오는 10일까지 전남광주 갤러리생각상자에서 ‘대지의 울림&존재의 성찰’이라는 타이틀로 열리고 있다. 전시에는 수채화는 물론이고 유화, 구상화부터

추상화까지 고르게 30여점을 출품했다.

이번 전시는 국제시각예술협회(회장 노정숙) 초청으로 마련됐다. 다와삼부긴 바트나산 작가는 예술 작업의 중심에 자연을 배치해 놓고, 접근해 왔다. 특히 그는 몽골에서 성장하면서 광활한 대지와 산, 강, 말 그리고 유목민의 삶의 방식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해 온 가운데 풍경 재현 대신 삶의 풍경들을 깊이있게 조망하기 위해 노력을 펼쳐 왔다. 그래서 21세기 몽골의 색채와 빛, 그리고 시대의 정서를 전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남게 될 것이라는 평가도 뒤따른다.

특히 그의 작품은 광활한 자연 풍경, 변화하는 도시의 정체성, 건축적 기억,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의 흐름을 하나의 통합된 시각 언어로 담아낸다. 이번 전시는 몽골의 자연 경관과 도시 공간, 그리고 문화유산에 대한 예술적 탐구를 선보인다는 평이다.

관람객은 먼저 강렬한 색채의 긴장감에 이끌린다. 깊은 청색, 선명한 녹색, 빛나는 황토색, 그리고 불꽃 같은 붉은색이 화면 위에서 역동적으로 교차



다와삼부긴 바트나산 작가

하며 강한 시각적 리듬을 만들어낸다는 설명이다. 산과 초원, 강과 하천, 오래된 거리, 급격히 변화하는 도시 풍경, 그리고 아시아 건축의 독특한 요소들은 그의 작품 세계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곡선 지붕, 파고다 형식의 건축물, 전통 대문, 불교와 유목문화의 흔적은 몽골의 문화적 기억과 현대적 시각 언어를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는 것이다.

또 절제와 단순화의 미학을 실현하는데 비중을



다와삼부긴 바트나산 작 '기억의 경계에 숨겨진 이야기'

두고 있는 작가는 불필요한 세부 묘사를 과감히 배제하고, 몇 번의 자신감 있는 붓질만으로 공간감과 빛, 그리고 정서적 깊이를 구축한다.

아울러 수채화 기법 자체를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있는 이번 전시는 동시대 몽골의 모습을 문화적 기억으로 보존하는 하나의 시각적 아카이브이기도 하다.

작가는 작업노트를 통해 “자연은 언제나 제 예술 작업의 중심 중 하나다. 내게 자연을 그리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풍경을 재현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삶을 바라보고 느끼며 다시 연결되는 하나의 방식이다. 나는 자연이 우리에게 평온함과 성찰의 시간을 제공하고 정서적인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는다”고 전했다.

러시아 출신 작가이자 큐레이터인 올라 프로콜로바는 “급속한 변화가 일상이 된 오늘날, 그의 작품은 깊은 사유와 성찰의 공간을 제공한다. 디지털 정보와 이미지의 홍수 속에서 쉽게 지나쳐 버

리는 순간들, 벽 위에 머무는 햇빛, 초원을 스쳐 지나가는 구름 그림자, 오래된 거리의 고요한 숨결은 그의 작품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다”고 평했다.

다와삼부긴 바트나산 작가는 몽골 수채화협회 창립자로, 알바니아, 중국 등 국내외의 유수의 국제 비엔날레에 참여했으며, 몽골 국가장관인 ‘알탄 가다스’(북극성 훈장)를 수상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다와삼부긴 바트나산 작가전이 지난 1일 개막, 오는 10일까지 광주 갤러리생각상자에서 ‘대지의 울림&존재의 성찰’이라는 타이틀로 열리고 있다.



만화 속 명대사를 새겨 넣은 접시와 수저받침들.

‘식객’ 명장면이 소주잔·접시로…전시 여운 일상까지

ACC재단, 특별전 연계 문화상품 12종 32품목 선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사장 김명규)은 어린이문화원 다목적홀에서 개막한 특별전시 ‘식객: 맛의 뒤편’ 연계 문화상품 12종 32품목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식객: 맛의 뒤편’은 허영만 화백의 대표작인 만화 ‘식객’을 바탕으로 음식 뒤편에 자리한 사람과

삶의 이야기를 조영하는 전시다. 원작의 주요 일화와 친필 원고는 물론 영상·미디어 콘텐츠, 실물 모형 등을 통해 만화 속 명장면을 입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번 연계 문화상품은 스티커 세트, 책갈피, 엽서, 마스킹 테이프, 안경 닦이, 변색 소주잔, 맥주잔,

시각 접시, 원형 접시, 수저받침, 수저 세트, 패브릭 포스터 등으로 구성됐다. 문구류부터 음식을 담고 나누는 식기류까지 폭넓게 선보여 전시에서 느낀 감동과 여운을 일상에서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식탁 위에서 음식을 나누며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식기류가 눈길을 끈다. 차가운 음료를 담으면 그림 색이 변하는 ‘변색 소주잔’과 만화 속 명대사를 감각적으로 새겨 넣은 접시 등을 통해 관람객들이 주인공 공천과 함께 식탁에 마주 앉아

음식을 나누는 듯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이밖에 허영만 화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선보여 온 개성 넘치는 그림들을 패브릭 포스터에 담아내 작가 특유의 유쾌하고 따뜻한 감성을 생활 공간에서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김명규 사장은 “만화 ‘식객’이 오랜 시간 전해온 음식과 사람의 온기 어린 관계를 일상 속 문화상품으로 있는 데 중점을 뒀다”며 “이번 상품을 통해 전시장에서 만난 깊은 울림과 감동이 관람객의 책상과 식탁 위에서도 오래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화상품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문화상품점 들락(DLAC) 매장과 공식 누리집에서 구매할 수 있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문화리뷰

10월초만 되면 ‘노벨문학상 수상자는 누가 될 것인가’ 전세계 문학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우리는 정확히 2년 전 이맘때 전국민을 전율에 들게 하던 사건이 하나 있었다. 전남 신안 출생 김대중 전 대통령(1924~2009)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제외하면 변변한 노벨상 수상 하나 없는 것이 우리의 처지였다. 이웃나라인 중국이나 일본은 손에 셀수 없을 정도로 혹은 간간히 잇힐만 하면 노벨상 수상자가 배출됐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부러움을 사곤 했다. 동방의 작은 나라, 지질이나 가난한 코리아는 ‘언제 제대로 된 노벨상을 받아볼 것인가’ 하고 자책하며 힘없는 나라를 원망하기도 했다. 그도 그럴 것이 노벨상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상 중에 최고의 권위로 인정받기에 지구상 존재하는 나라치고 이 상을 희망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우리에게 노벨상은 한없이 부러운 상이 됐으나 그와 반대로 ‘가난한 나라에는 이 상이 주어지지 않나 보다’ 하고 미리 좌절부터 해야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DJ)이 노벨평화상을 받은 것이 지난 2000년이었다.

그로부터 2024년 소설가 한강이 ‘소년이 온다’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우리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기까지 6박

다시 돌아온 ‘노벨문학상’ 시즌

한글날 앞서 8일 오후 8시 발표 예정

中 찬쎄·日 무라카미 하루키 등 유력

각 부문별 12일까지 순차적 선정 발표

52년이 걸렸고, 순수학문 영역의 노벨상을 수상하기까지는 78년이 소요됐다. 노벨평화상 수상으로 부터는 24년이 걸렸다. 노벨문학상 수상은 우리에게 오랜 시간 동안 갈구해온 노벨상에 대한 갈증을 단박에 해소해 줬다.

더욱이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은 광주 북구 중흥동에서 출생해 광주효동초등학교를 다녔다. 그의 아버지는 장흥 출생 원로 소설가 한승원씨다. 한승원씨는 소설가단의 원로가 됐지만 여전히 고향 장흥에 머물며 창작생활을 지속해가고 있다. 그래서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전남·광주민들의 자긍심을 한껏 고양시켜줬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다만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소년이 온다’의 주무대인 5·18의 광주 사적지를 빼면, 광주에서 한

강을 기념하고 그를 추억하며 머무는 공간은 부재하다. 당사자와 그의 가족이 기념공간 조성이나 사업 같은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치게 되면서 좌초됐다는 정도만 알고 있을 뿐이다. 광주특별시 북구 중흥동 소재 그가 머물렀던 주택 인근에 북카페를 조성하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한강을 기억할 공간은 미완으로 남아 있다.

그러다보니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도시임에도 타지인들에게 안내할 곳이 마땅하지 않게 됐다. 그래서 딱히 한강의 고향이 광주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것 자체부터 말문이 막힌다. 광주는 전국에서 부러워할만한 프로필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살려내지 못해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 효과가 극대화되지 못했다. 이뿐이 아니다. ‘광주 노벨문학상 수상자 배출’은 이미 시들해진지 오래된 듯하다.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프로필을 옮겨줘서 광주의 자산으로 엮어내지 못한 행정력이 대단히 아쉽다.

어느새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지 2년이 됐고, 또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 발표를 앞두고 있다. 한글날 앞날인 오는 8일 오후 8시에 예정돼 있다. 올



광주특별시 북구 중흥동 광신맨션 앞 한강의 북카페 부지는 북카페 공간으로 급부상했으나 현재는 그 어떤 표식도 없이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어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배출한 곳이 맞나’는 의구심이 들 정도가 되고 있다. 사진은 한강의 북카페 부지로 거론됐던 중흥동 광신맨션 앞 공터.

해 수상 후보군에는 배팅업체에 의해 소설가 황석영씨 등이 한때 언급되기도 했다. 현재 유력후보군으로 배당률이 높은 작가로는 중국 아방가르드 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로, 꿈과 불안, 무의식이 뒤섞인 초현실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해 ‘중국의 카프카’로 불리는 찬쎄와 프란츠 카프카 문학상 및 안데르센 문학상 등을 수상한 일본의 무라카미 하루키가 꼽힌다. 찬쎄는 10대1(9.1%), 무라카미 하루키는 14대1(6.7%)로 각각 1, 2위를 달리고 있다. 지난해는 헝가리 작가 크리스호르케이 라슬로가 수상했다. 올해 다시 아시아 작가가 수

상하면 그것 또한 영광이 아닐 수 없다. 문학상과 생리의학상(5일)과 물리학상(6일)에 이어 화학상(7일), 평화상(9일), 경제학상(12일) 등 순차적으로 발표된다. 가장 먼저 발표된 생리의학상에는 ‘광유전학’(optogenetics) 분야를 개척한 칼 다이스로스(스탠퍼드대 생명과학 교수), 페터 헤게만(독일 생물학자), 게오르크 나겔(독일 생물학자) 등 세 과학자가 공동 선정됐다.

이런 가운데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은 누가 영예를 차지할지 점점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